

말과 행동을 함께 한 노무현의 발자취.

*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잘못이 없어 초겨울 어느날 학교 교실에서 이틀을 잤다. 그 때 밤새껏 이를 악물고 어떻게나 떨었던지 다음날 이빨이 아파서 온종일 밥을 한 숟갈도 먹을 수가 없었다.

-내가 걸어 온 길중에서-

* 공사현장에 나갔으나 처음 일주일 동안은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잔심부름을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성실하다며 10일동안 더 이할수 있게 해주더군요. 그런데 불행히도 일을 하다가 그만 발바닥이 못에 찔렸습니다. 그 후로는 일을 더 못했을 뿐이 아니라 밀린 밥값등을 제하고 나니 받을 노임도 없었습니다.

-내가 걸어 온 길중에서-

* 57일간이나 가족들에게 아무 연락도 못하고 짐승처럼 지내야 했던 청년들. . .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발톱이 새까맣게 죽어버린 몸을 내보이면서도 고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변호사마저도 정보기관에 첩자가 아닌가 눈치를 살피던 파리한 청년들을 보면서 나의 죽었던 가슴은 서서히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1981년 부림사건의 변호를 맡고-

*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청년들 가슴에서 순수하게 불타던 이상이 죄였고 순수한 이상을 가진만큼 남과 달리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조국의 장래를 누구보다 걱정하면서 부정과 불의에 용감히 항거한 것이 죄일뿐이다.

-부림사건. "그 날조된 죄인들" 중에서-

* 청년들과 대화를 하는 동안 나는 차츰 그들의 삶을 존경하게 되었고 자신과 가족, 부모형제끼리만 잘 먹고 잘살면 고만이지 이웃의 고통이나 권력의 부정부패, 불의 따위는 모른체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체념하고 살던 나의 삶이 한없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부림사건 "그 날조된 죄인들" 중에서-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순 분성이의 독재정권을 무너트리고 이나라의 정치가 민주화 되어야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사람대접 받으면서 사는 세상을 만들수 있다는 생각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왜 저항하는가에서-

* 현재의 예비 예비들이 앞장서서 싸움으로서 우리 자식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대신하고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물려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나는 결단을 내렸고 싸우다 죽어도 자식들에게 몇몇할 할수 있는 일이 아니냐고 생각했다.

—나는 왜 저항하는가에서—

* 아내 몰래 호주머니를 몽땅 털어 유인물을 만들고 확성기를 사주고 밤을 세워가며 청년들과 작전회의를 하고 밤 2~3시에 모두들 수배된 몸이라 어디에서 잠자리를 찾아야 할지 몰라하는 청년들과 악수를 하고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나는 왜 저항하는가에서—

* 한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며 묵묵히 자신을 내던지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인류의 삶을 평화롭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돕는 자선가와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같지만 결국 뿌리는 같은 삶을 사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는것이 중요한가—

* 어린 아이들에게 읽혀지는 위인전 중에서도 역대에 남을 짓밟은 사람이나 힘으로 지배한 사람들은 그 세대에 고통을 준 사람이므로 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수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존경하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의 삶의 표본이 될 수는 있지만 보통사람들에게는 한계와 좌절을 느끼게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재능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 인류의 기여한 사람이 이 시대의 참된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것이 중요한가—

* 민주주의를 자기 한몸 기꺼히 내던지는 투쟁을 통해 쟁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지 않는 정직하고 공평하고 정의를 목숨처럼 존중하는 당당한 국민의 대변자로서 뉘그러면 없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을 따름이다.

—국회의원 출마의 이유중에서—

*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도둑놈 전경환, 그의 형수 이순자, 전두환, 이런 계5공화국의 비리를 목인했던 노태우 허삼수 등 모든 비리에 관계된 도둑놈들을 깡그리 잡아다가 국민의 손으로 심판하자.

—국회의원선거유세에서—

* 나는 당내 위치가 정말 보잘것 없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노동법 심의 가정에서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는 당의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이고 국회에 기증민중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

* 지역성의 뿌리는 호남이 권력으로부터 소외됐다는 점이다. 이것은 군부정권이 들어서면서 심화됐다. 어쩌면 호남의 지역감정은 피해자의 한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영남의 그것은 피해자의 한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방어 본능일 수도 있다.

—지역감정에 대해서—

* 저는 결혼하고 어느 시점부터 아내한테 지고 살기로 작정을 해서 아내는 저를 바보 정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때부터 갑자기 집으로 전화들이 걸려 오니까 얼떨떨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일 같기도 하고 혼란이 생기나 봐요.

—청문회 이후 인터뷰에서—

* 지금까지의 증인의 처신이 당연시되고 증인이 영웅시되는 사태가 있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 증인은 힘이 있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따라갔다고 한적이 있는데 그와같은 가치관이 젊은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실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심정이다.

—현대계별총수 정주영증인신문에서—

* 증인은 개인신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남의 집을 짓밟고 연금하고 고문하던 장본인이 개인의 권리를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전안기부장장세동증인신문에서—

* 여러분! 법이 면접니까, 사람이 면접니까?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 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람을 위해 있더라도 권력 있고 돈 있는 몇 사람을 위한 법이라면 역시 법이 아닙니다. 법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노동자들에게—

* 노동 3권은 수백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선배들이 확실하게 싸워온 결과로서 쟁취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는 헌법에만 써가지고 불허놓은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선반위에 올려놓은 밥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밥은 하면 먹으라는 것이고 부엌칼은 사오면 고기도 썰고 사과도 깎고 무우도 썰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반위에 모셔 놓는게 아닙니다.

—현대중공업노동자들에게—

* 전쟁의 위협이 있는 나라에, 비행기로 오면 3분 거리에 있는 서울에 왜 63층 짜리 빌딩을 짓습니까? 부산에다 지어야지요. 왜 이런것을 허가해 줍니까? 비행기로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 올수 있는 아니 포탄의 유효사거리안에 있가고 불수 있는 영종도에 왜 비행장을 또 닦습니까?

—현대중공업노동자들에게—

* 노동자가 1년에 1700여명 죽어갑니다. 이걸 대충 숫자로 환산을 해보니까 노동자가 20세부터 노동을 시작해서 60세까지 40년간 일을 한다면 목숨을 잃을 확률이 10000명의 50명입니다. 산재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중에 하나인 이곳에서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노동자들에게—

* 법이 현대 앞에만 오면 흐물흐물 거립니다. 판사도 흐물흐물, 경찰도 흐물흐물, 검사도 흐물흐물, 도대체 무슨 조화속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제5공화국 동안에 새마을 재단을 비롯해서 새마을 본부, 일해재단, 이순자치마족과 전두환 뒷 호주머니에 끼워준 돈이 175억5천만원입니다. 이놈의 돈이 대머리 위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무쇠를 녹입니다. 안되는게 없어요.

—현대중공업노동자들에게—

* 사람다운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오늘 앞장서서 싸운 몇사람이 희생될 때 그 희생자는 그냥 희생으로 남겨두고 나 몰라라 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 열매만 따먹는 노동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정말 비극입니다.

—현대중공업노동자들에게—

* 여러분 모두가 배신자가 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의만 가지고 싸울 때 열명을 잡아 넣으면 백명이 감옥문 앞에가서 함께 넣어주기를 요구하고 백명을 잡아 넣으면 천명이 가고 천명을 잡아 넣으면 만명이 가면 현대중공업의 파업은 이긴다 진다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노동자의 상태를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현대중공업노동자들에게—

* 지난 7월2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15세된 소년노동자가 수은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같은 또래의 재 자식놈은 아직 공부조차 힘이 들어서 응석이

나 부리고 있는 철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죽은 이소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나이에 멀리 서산에서 서울까지 부모 슬하를 떠난 것만 해도 애처로운 일인데 그런 어린 아이가 귀중한 생명이 좀먹어 가는 그 위태로운 작업장에 방치되고 끝내 목숨까지 잃게한 책임은 결코 무능한 그의 부모만이 져야 되는 것입니까?

—대정부질문중에서—

*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외쳐대는 한민족 한동포라는 말이 과연 진실이라면 노동자들도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의 고통이 돈과 힘을 한 손에 모아진 소수 특권계급의 착취와 억압에 기인된 것이라면 그들은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대정부질문중에서—

* 총리가 말한 체제라는 말이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 체제는 군부독재에 의해 이미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체제라는 말이 자본주의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 체제도 이미 독점재벌들에 의해서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가들의 끝없는 탐욕과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그 반신불수의 체제나마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대정부질문중에서—

* 정부는 입만 열면 노사화합을 외칩니다. 그러나 노조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긴 공장바닥에서 스티로폴 한장 깔고 앉아서 생라면을 씹고 있는 이 노동자가, 그리고 가족이 가져다 준 주먹밥마저 빼앗아서 불태우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 노동자가, 그리고 끝내는 감옥에 갔다가 해고되어서 길거리에 내 쫓긴 이들 노동자가 그들을 내팽개친 기업주와 이 당위에서 서로 화합해서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대정부질문중에서—

*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국회가 무슨 소용이고 국회의원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이러한 사태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욕임은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깊은 치욕감을 느낀다. 현재 나의 건강상태는 이같은 수모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겨나갈만한 상태에 있지 않다.

—89, 3, 21일 의원직을 사퇴하며—

* 지금 이시간에도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싸우고 있는 대중투쟁이야말로 의정활동에 못지 않게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나

는 얼마동안 건간을 위하여 휴식을 취한 다음 건강이 회복되는대로 박해속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의 투쟁대열에 동참하려 한다. 어느 길을 가더라도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나를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 89, 3, 21,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

* 무명시민들 때문에 마음이 대단히 흔들렸습니다. 잠적해 있는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택시를 탔을 때, 목욕탕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저의 입장을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퇴결정 때 가졌던 확신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린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의원직사퇴를 철회하고—

* 재 생전에 그렇게 많이 다녀보진 처음일 것입니다. 충주호 경포대 덕산온천 수덕사 속리산 등에 갔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알아보고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데다 민주당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만일 나쁜 짓을 하고 도망을 다녔다가는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의원직사퇴를 철회하고—

* 정당은 정치적 이념과 노선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총재님께서는 구테타의 주역들과 정치이념을 같이 하셨습니까? 총재님의 이번 결단이 총재님께는 쾌거일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정치에 대한 상식을 파괴하는 폭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 3당야합후 김영삼씨에게 보낸 공개장 —

* 총재님께서는 평지풍파를 일으켜 정치인들을 모두 기회주의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총재님을 따르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고 그 결과 총재님을 따라간 사람이든 남은 사람이든 모두 국민들 눈에는 소신도 지조도 없는 사람으로 비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런 정치희극에 울어야 합니까 웃어야 합니까?

— 3당야합후 김영삼씨에게 보낸 공개장 —

* 선생님께서는 87년 11월 민통련에서 “지도자와 국민이 뭉쳐 있을 때는 결코 군부가 총을 들고 나올 수 없고 그 반대로 지도자와 국민이 쿠테타를 두려워하여 한발두발 물러서면 군부가 자신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시고는 아르헨티나의 “알폰신” 대통령의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1년만에 그 말씀을 뒤집고 화국을 면했다고 하셨으니 어리석은 저로

서는 놀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김대중총재에게 보내는 공개장—

* 선생님이 현재 정치상황에 대한 신뢰할만한 영단이 없는 한 한정된 곳에서만 열광적인 지지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더욱 고립을 자초하는 악순화를 반복되게 할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선생님은 호남인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단결을 위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인 듯 싶습니다.

—김대중총재에게 보내는 공개장—

* 우리는 청산과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결단은 국민의 대한 배신이나 현실도피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길만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 민자당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를 막고 민주화의 희망을 되살릴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확신합니다. 그동안 성원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과 우리들 선출하여 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용서를 빕니다.

—1990, 7, 13 의원직을 사퇴하면서—